

“내년 총선 지역인재 등용해달라”

한나라 호남발전특위 워크숍서 정용화·김문일 위원 주장

“전 선거구 후보 배출...석패율 제도 도입을”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공조적 강화와 지역 인재 등용을 통한 전 선거구 후보 배출과 함께 석패율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정치일정 때 등장하는 ‘호남 구애’는 말 그대로 구애만 그럴 뿐 실권력 부족으로 오히려 호남 민심을 자극하는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왔다.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운천) 워크숍에서 박재우(위원장 정용화·김문일)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한나라당 호남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주장하고 중앙당의 호남에 대한 무관심을 집중적으로 질

타했다. 정 위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광주·전남도당 위원장 공석과 함께 사고 지구당으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역현안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중앙과의 소통창구로서 공조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물을 시·도당 및 당 협위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시·도당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지역 내 당 활동 중심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당 대표 등 지도부들이 광주에 올 때마다 호남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강조했다지만, 정작 실천의지는 의문시되고 있다”라며 “현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호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실천력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

도당 조직(인사 포함)을 혁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석패율 제도를 통해 호남권에서 국회의원 당선자가 확보될 경우 이는 지역 내 정치적 정서의 틀에 변화를 이끌어 올 것이며, 각 국회의원별 공식 활동에 힘입어 대선에서 호남에서의 한나라당 돌풍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석패율제도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 위원장은 “지도부의 무기력이 4·27 재보선 대패로 이어졌고, 전남 순천과 화순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를 출전시키지도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호남지역민과 당원들에 대한 외면과 방치”라며 “호남에 후보를 출전시켜 한나라당의 정책과 정부의 연성감 사업, 여수엑스포 등 호남정책을 홍보라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군소정당조차 경쟁적으로 후보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호남에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것은 중앙당의 시각이 문제”라며 “더욱 문제는 호남에 대한 약속 불이행은 한나라당의 지역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지역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져 지역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틈새를 파고들어 지역민심의 확실한 변화를 얻을 수 있는 조직망 구축이 절실하다”라며 “호남민심을 읽고 대책마련을 위해서 시·도당 정상화 및 활성화와 모든 당협위원장 교체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을 주재한 정운천 최고위원은 “20년 동안 한자릿수였던 득표율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두자릿수로 오를 정도로 이제 호남은 한나라당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중앙당의 지속적인 관심과 석패율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한나라당도 호남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한나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광주·전남·전북·전북도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호남지역 한나라당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나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한나라당 호남지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나라당 소장개혁파 의원들이 당 쇄신연대를 결성하면서 전면적인 쇄신투쟁에 나섰다.

정두언·남경필 최고위원과 4선의 남경필 의원, 재선인 김정권 의원 등 재선 이상 소장파 의원들은 3일 밤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당 쇄신을 위한 그룹별 모임을 이어가면서 앞으로 연석회의를 갖기로 했다.

정 최고위원은 “뜻을 같이하는 권영세·차명진·김태호 의원 등도 참여하는 모임을 다시 갖기로 했다”며 “앞으로 (소장파) 재선 이상 의원과 초선 의원들이 각각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나중에 함께 만나는 모임을

한나라 소장파와 쇄신론, 이번엔 끝을 볼까

정두언·남경필 의원 등 쇄신연대 결성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장과 초선의원들은 또 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쇄신 흐름은 수도권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영남권 텃밭과 달리 수도권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현 상황을

절박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쓰나미’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들의 행보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쇄신 요구가 처음이 아닌 데다 또다시 ‘용두사리’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실제 쇄신론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와 2009년 4·29 재보선 참패, 2010년 6·2 지방선거 완패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그때마다 소장개혁파는 청와대와 당 주류를 겨냥하며 전면 쇄신을 요구했지만 결과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때문에 소장개혁파는 이번에는 반드시 쇄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각오다. 한 소장파 의원은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공멸할 수밖에 없다”면서 “당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한·EU FTA비준 놓고 노선 갈등

당 지도부 대부분 반대...협상주도 박지원대표 비판도

민주당이 국회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노선 갈등을 빚었다.

당 지도부 대부분은 비준안 처리에 반대했다. 일부 최고위원은 한·EU FTA를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야 협상을 주도한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손학규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고성이가 오는 등 격론이 펼쳐져 표결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두자릿수로 오를 정도로 이제 호남은 한나라당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중앙당의 지속적인 관심과 석패율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한나라당도 호남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EU FTA에 반대하는 정동영 최

고위원은 “한나라당을 대체하려는 대한 정당으로서 (비준안 처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적을 높였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한·EU FTA가 발효하면 사문화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최고위원은 “다른 야당들과 협의도 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정국 흐름과 도의에 어긋난다”며 비준안 처리 연기를 주장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너무 성급하다”고 협상단을 겨냥했다.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들기만 하던 손 대표는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피해 산업과 피해 국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인 만큼 결코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다. 또 우리 여야 정책협약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SSM 규제법과 피해보전 직불제 개정으로 피해 보상 대책이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하면서 사실상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여야 합의대로 비준안 처리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도노선 강화는 낭떠러지로 가는 길”

김근태·문재인, 재보선 승리 도취 민주당에 쓴소리

4·27 재보선 승리를 자축 분위기에 젖어있는 민주당에 대해 야권 내부의 ‘고인’과 ‘충고’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올린 ‘지금이야말로 분발할 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분당 선거 승리 후 중간총 흡수를 위해 중도 정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에 제동을 걸었다.

당내 친노, 486, 재야파의 결사체인 ‘진보개혁모임’ 공동대표인 김 상임고문은 재보선 승리에 대해 “우리는 반사 이익을 본 측면이 강하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분위

가 민주당을 안주하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당 선거 승리를 계기로 당내에서 중도 노선 강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것과 관련, “이는 위험천만한 이야기”라며 “지금은 ‘중도실용’이 캐스팅 보트로 보이지만 이는 곧 낭떠러지로 나타나는 길”이라고 경고음을 냈다.

이 같은 김 고문의 주장은 ‘중도 실용’ 성향의 손학규 대표에 대한 견제로도 읽힐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지국가

와 민주주의를 위한 싱크탱크 네트워크’ 창립대회에서의 축사를 통해 “진보개혁진영이 잠잠해 얻은 승리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만큼 진보개혁진영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평화라는 과제에 대해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기에는 아직 진보개혁진영의 정책 역량이 취약하다”며 “무엇보다 진보개혁진영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내년 총선서도 야권공조 이뤄질까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 회동 관심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과 민주당 김성근, 주승용, 유우근 의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오는 6일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은 최근의 정치현안과 지역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물론 ‘공동발전협의회’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기구 구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동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 공조가 잘 이뤄진다면 내년 총선 광주·전남지역에서의 야권연대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을 떠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순천은 물론 광양과 여수 등 전남 동부권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연대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은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염분·당류 과다 사용 식품

학교 200m 이내 판매 금지

김재균 의원 법안 추진

어린이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염분·당류·유지류를 과다 사용한 식품을 규제하고 이들 식품을 학교 인근 200m 이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 4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용 식품이 아니더라도 이 기준을 초과한 모든 식품을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는 어린이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무원 대출

공무원 대출

- ▶ 대 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금 액 : 500만원~8,000만원
- ▶ 금 리 : 년 5%~
 - 대출과다나 연체로 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대상인 분 가능

직장인 대출

- ▶ 금 액 : 500만원~5,000만원
- ▶ 금 리 : 년 9%~
- ▶ 대 상 : 3개월 이상 근무자 누구나 가능 (신용불량자 제외)

1544-0936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0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00-13(중개수수료는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부중개업 등록기간 : 대구광역시 대표자 : 백영학
 제1금융권이자율(최저 5.5%~13%(연체금리 18%~22%) 제2금융권이자율(최저 연 11.9%~33%(연체금리 22%~44%) 제3금융권이자율(최저 연 33%~44%(연체금리 44%)

홈페이지제작은 기본! 모바일홈페이지 까지!

도메인

호스팅

홈페이지만 만들면 이 모든것이 무료!

로그인
디자인

컨설팅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상담 폭주!
(아이폰, 안드로이드 등)

상담문의

010-2637-9358

마블아이엔씨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KDB빌딩 1904호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형성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증이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중-473호